

교환학생 귀국보고서

파견 학 기	26년도 1학기	파견 국 가	독일
파견 대 학	Technical University of Munich		
학 번	2024-15207	이 름	김세은
소 속	공과대학 기계공학부 기계공학전공		

본인은 서울대학교 국제협력본부 주관 국외파견 교환학생 의무 사항인 수학 후기를 제출하며, 이를 OIA 홈페이지 게시 등 정보 공유, 학생 안내, 프로그램 홍보 등 자유롭게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 출 일	2026 년 8 월 10 일
작 성 자	김세은 (서명/인)

I. 교환 프로그램 참가 동기

세계 최고 수준의 공과대학에서 기계공학 전공 지식을 넓히고,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과 교류하며 시야를 확장하고자 교환학생에 지원했습니다. 또한, 유럽의 중심에 위치한 독일에서 생활하며 인접 국가들을 여행하고 새로운 문화를 직접 부딪쳐보며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II. 파견대학 및 지역 소개

뮌헨은 독일 남부 바이에른 주에 속해 있으며 독일에서 가장 부유하고 범죄율이 낮아 유럽 내에서는 비교적 안전한 도시입니다. 실제로 여행해 본 유럽 도시들 중 가장 거리가 깨끗하고 노숙자가 없었습니다. 도시 곳곳에 자연이 잘 어우러져 있어 날씨가 좋을 때면 영국 정원(Englischer Garten)과 이자(Isar) 강에서 여유를 즐기기도 좋습니다. 독일 날씨가 종잡을 수 없고 쌀쌀한 것으로 유명한데, 올해는 4월~6월 내내 우리나라 봄 날씨로 아주 쾌적해서 좋았습니다. 6월 말에 유럽 열돔 현상으로 이례적인 더위가 찾아오긴 했지만 습하지 않아서 견딜 만했습니다.

뮌헨 공대(TUM)는 유럽 전역에서 가장 권위 있는 공대 중 하나로, 캠퍼스가 뮌헨 지역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저는 기계과라 대부분의 수업을 가칭(garching) 캠퍼스에서 들었고, 기숙사 또한 가칭 지역에 배정받았습니다. 뮌헨 도심에서 지하철로 20~30분 정도 떨어져 있지만 뮌헨 공항과는 비교적 가깝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III. 출국 전 준비 사항

1. 비자 신청 절차

비자 받는데 시간이 꽤 걸린다고 해서 파견 증명서가 나오자마자 12월 10일에 비자 신청을 했고, 인터뷰는 2월 23일, 최종 비자는 2월 26일에 받았습니다. 독일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지만 예약 잡는 데만 2~3달이 걸리고, 발급 비용도 더 비싸니 마음 편하게 한국에서 받고 오시는 걸 추천합니다. 비자 발급 과정에서 재정 증명을 위해 엑스파트리오(Expatrio)를 이용해 슈페어콘토(블록 계좌)를 개설하고 필수적인 공보험(TK)에 한 번에 가입했습니다. TK에서 알아서 TUM에 보험 증명서를 보내줘서 간편하지만, 비싸고 딱히 병원 갈 일이 없었기 때문에 좀 번거롭더라도 사보험에 가입하는 게 나았을 것 같습니다.

2. 숙소 지원 방법

기숙사의 경우 파견 지원(admission) 과정 중 관련 질문에 응답하여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에서 원한 공대로 파견된 학생들 대부분은 olydorf에 있는 독채 기숙사를 받는다고 해서 기대했는데 이번 학기는 누구도 배정받지 못했습니다. 저와 기계과 다른 분 둘 다 가헝에 있는 Jochbergweg 기숙사에 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기계과이신 분들은 질문에 별다른 요청 사항을 적지 않으면 이곳으로 배정받으실 것 같습니다. Jochbergweg 기숙사는 개인 방이 있고, 6명이서 남/여 화장실 1개씩, 남/여 샤워실 1개씩 공유하고, 주방은 12명이 공유합니다. 주기적으로 청소해 주시는 분이 오셔서 나름 깨끗하게 유지됩니다. 한국 기준 4층짜리 건물인데 엘리베이터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했는데 플랫 메이트들이 조용하고 마주칠 일이 적어서 괜찮았습니다.

IV. 학업

1. 수강신청 및 시험 신청

원한 공대는 강의 수강 신청과 시험 신청이 별도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원한 공대 국제처에는 본인 전공을 60% 이상 들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딱히 신경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전공 인정 신청에 관심 없으신 분들은 한 번 문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강 신청 기간이 넉넉하여 학기 중에도 자유롭게 강의를 넣고 뺄 수 있지만, 학점을 이수하려면 반드시 잊지 말고 시험 신청 기간에 접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원한 공대 대부분의 수업이 출석 체크를 하지 않고 시험으로만 성적이 결정됩니다.

2. 수강과목 설명 및 추천 강의

서울대 파견학교 목록에 원한 공대는 독일어 자격 없이는 기계과 지원 불가라고 되어 있는데, 원한 공대와 서울대 국제처 양측에 문의한 결과 기계과 대부분의 강의를 독일어로만 열려서 그런 것뿐 지원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해서 기계과로 지원했습니다.

저는 Dynamics of structures, Robot Dynamics, Introduction to Research management for Engineering Students, Introduction into Patent, Trademark and Design Law for Engineers를 들었습니다. 뒤에 두 과목은 내용도 어렵지 않고, 공대에서 보기 드문 객관식 시험이니 추천합니다.

V. 생활

1. 교통

독일 내에서는 43유로 티켓(도이칠란트 티켓)을 활용하면 전역의 저속 열차와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어 통학 및 근교 여행에 매우 유용합니다. 또한 원한은 유럽의 중앙에 위치해 있어 기차나 버스 등 육로를 이용해 주변 국가로 여행을 다니기에 최적의 위치입니다. 도이칠란트 티켓으로 ICE(고속 열차)는 이용할 수 없어서 멀리 가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Bahncard 25를 사서 고속 열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이는 1년 동안 IC나 ICE 2등석을 25%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할인권으로, 고속 열차를 3~4번만 타도 이득이기 때문에 동유럽, 스위스 등 인근 나라들을 여행 다니실 계획이라면 구입을 추천합니다. DB가 연착으로 악명 높는데, 저는 제일 심한 연착이 1시간 정도였고, 이로 인해 다음 일정이 꼬였던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기본 20~30분 정도는 지연된다는 가정하에 다음 열차를 잡으시기를 추천합니다.

2. 여행

원한이 유럽 중앙에 위치해 있어서 육로로 여행 다니기에는 좋지만, 원한 공항은 라이언에어, 위즈

에어 등 저가 항공이 거의 취항하지 않기 때문에 항공편이 꽤 비싼 편입니다. 그나마 취항하는 이 지젓도 런던, 로마 등 핵심 도시들만 가기 때문에 비행기표가 1~2시간 가는 것도 30만원씩 합니다. 그래서 보통 플릭스 버스를 타고 근교에 있는 뉘른베르크 공항이나 메밍겐 공항으로 갑니다. 두 공항은 작아서 비행기 편이 많지는 않지만, 라이언에어가 취항하기 때문에 싸게 여행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유용한 정보

기숙사에 입주하면 가장 먼저 14일 이내에 거주지 등록인 '안멜등(Anmeldung)'을 완료해야 합니다. 뮌헨에 안멜등 하시는 분들은 미리 한국에서부터 예약을 잡거나 아침 7시에 취소표를 잡아야 한다던데 가칭 기숙사에 배정받은 분들은 뮌헨시가 아니라 munchen bei garching에 안멜등을 하셔야 합니다. 여기는 자리가 남아나서 저는 당일 아침에 일어나서 예약 잡고 다녀왔습니다. 여권과 기숙사 입주할 때 받았던 입주 확인서를 들고 가시면 10분도 안 걸려서 안멜등 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독일 입국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비대면으로 N26 계좌를 만들었는데 만들기도 쉽고, 구글 페이에 연동할 수 있고, 따로 계좌 유지비도 들지 않아서 추천합니다. 개설 방법은 검색해 보시면 친절하게 설명해 놓으신 분들이 많아서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보통 독일 교환학생 분들은 알디톡을 많이 사용하신다고 들었는데 제 기숙사 근처에 알디가 없고, 간혹 가다가 독일 이외 지역에서는 안 터지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fraenk로 가입했습니다. 심을 보관할 필요도 없고, 유럽 다른 나라로 여행 가도 따로 설정할 필요 없이 잘 터지고, 한 달 25GB에 10유로밖에 안 해서 추천합니다. 개통 방법 또한 검색해 보시면 친절하게 설명된 글들이 많습니다.

Ⅵ.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마치는 소감

교환학생 기간은 단순한 학업을 넘어 제 자신을 다방면으로 성장시킬 수 있었던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낯선 타지에서 혼자 생활하며 크고 작은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자립심과 독립심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 나라를 여행하고 다양한 문화권의 친구들과 교류하면서, 세상의 다양성을 온몸으로 체감하고 유연한 사고방식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단순히 즐거운 추억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제가 나아가야 할 진로와 미래를 구체적으로 고민하게 만드는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제공해 준 서울대학교 국제협력본부와 공대 국제협력실에 감사드립니다. 교환 학생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이 글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